



금속 경주지부

변화와 혁신! 도약하는 경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지부

24.08.28

13기
VOL.11

발행 : 점진음 | 발행일 : 2024.08.28.(수) | 전화 : 054-748-3223 | 팩스 : 054-773-9270

경주지부 미타결사업장 조합원 결의대회 발레오 투쟁 승리!

경주공장 생산이 우선! 생산확대 절차 미이행시 해외 생산제품 국내반입 불가!



2024년 8월 22일 발레오전장 1공장 민주광장에서 경주지부 조합원 1,300여명이 모여 “2024년 발레오투쟁 승리 경주지부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발레오만도지회는 이날 파업 44일차를 맞이하고 있었다. 신발 깔창이 녹아 아스팔트에 불었다는 후문이 들릴 정도로 뜨거운 날씨 속에서 각 지회 깃발 입장을 시작으로 상징의식까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경주지부 집단교섭 사업장들은 이날 4시간 파업에 돌입하고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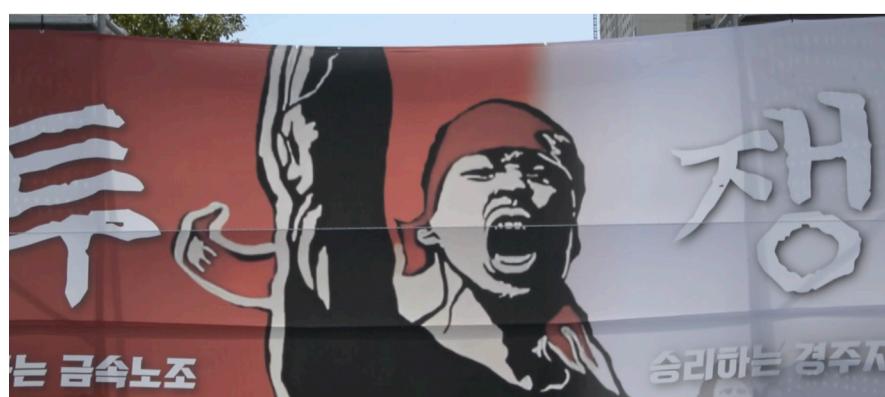
결의대회 후 다음날인 8월 23일 발레오 노사는 의견일치에 이르렀다. 발레오만도지회는 2024년 임단협을 통해 경주공장 생산 안정화를 위협하는 중국산 역수입에 대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목표로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번 합의에는 [해외생산제품 반입금지]에 대해 “경주공장

생산을 위해 숙련직 재고용, 법적 최대노동시간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협조, 생산라인 개선 및 완제품 생산 확대, 상시 야간조 신설 등 모든 노력을 강구하되 그럼에도 주문 물량 대비 생산량 부족시 사전에 조합과 논의하여 해외물량의 기종, 품목, 기간, 수량 등을 결정” 하기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조합원 범위 확대, 노동조합 활동 강화, 장기근속자 우대 등에 합의했다. 또한 보전수당을 신설하여 주간연속근무형태 변경으로 임금이 적어진 상시주간조 조합원들의 임금을 상향시켰다.

무엇보다 2024년 투쟁의 성과는 기업노조와의 통합 이후 단일한 투쟁 대오를 형성하고 45일 파업투쟁을 전개한 조직력을 확인한 것이다.

“또 발레오냐?”라는 말이 제일 무서웠다는 신시연 지회장과 간부들은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을 지지하고 응원해준 경주지부 동지들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리셀 중대재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시 전곡산단 내 리튬이온 배터리 공장 아리셀에서 폭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5명, 중국 동포노동자 17명, 라오스 이주노동자 1명 도합 23명이 사망했고,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생겨난 것. 이에, 유가족과 노동 및 사회단체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차별없는 피해자 권리보장, 이주노동자 실질 안전대책 등을 요구하며 화성시청에서 매일 추모제 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참사가 발생한 지 두 달여가 지났지만 사측은 요구에 응하기는커녕 피해자 가족을 회유하고 협박하며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으며 사측에 닥칠 형사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참사 발생 55일여가 지나가는 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생명에 대한 존중, 사고에 대한 책임의식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에, 대책위는 2024년 8월 17일 참사 55일째에 맞춰 죽어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남은 유가족들을 응원하기 위한 희망버스를 조직했고 전국에서 2천여명의 동지들이 화성으로 집결하였다.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이날 “아리셀 학살” 중대재해 진상규명과 유가족들에게 힘을 싣고자 각 지회의 노안담당자들이 주축을 이루어 화성으로 향하였으며 새카맣게 탄 공장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투쟁에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화성시청 인근에서 유족, 추모제 참가자들과 함께 국화를 한송이씩 안은 채 2km가량의 도보행진에 참가했다.



이날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금속노조 경주지부 우정식 부지부장은 “2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정부도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 이에 경주지부는 23명의 사회적 참사를 기억하고 온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 질 때까지 함께 기억하고 함께 투쟁해 나가겠다”며 연대를 기약했다.

